

## 6. 산지천(山地川) 복원<sup>32)</sup>

동문다리 근처에서 은어 낚시를 하던 생각이 난다. 밀물 때를 맞춰 산지 다리에서는 돛을 낚던 생각도 난다. 어릴 적 나는 적잖은 시간을 산지천(山地川)에서 보냈다.

철새들이 날아오곤 하였다. 실지로 홍예교 앞 계천에 백조가 앉아 있는 사진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나이또래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이면 누구나 보아온 정경이다.

산지천은 곧 성내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향수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한 시대를 살고 가는 성내인들의 향수만이라고 할 수 없다.

---

32) 『한라일보』(삼각봉), 1997. 05. 29 (목), 논설고문.

이곳에는 충암(冲庵) 김정(金淨)이 파놓은 ‘판서정(判書井)’<sup>33)</sup>이 솟고, 매일 아침 경건한 기도를 올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경천암(擎天岩)’이 솟아 있다. 1천여 왜구를 물리친 건공장군(建功將軍) 김성조(金成祖)의 얼이 흐르고, 방성칠(房星七) 난 때 창의군에 맞아 죽은 반군<sup>34)</sup> 대장 김낙영(金洛榮)의 한이 흐르고 있다. 또 통한의 유배인 조정철(趙貞喆)의 시가 어리고 못된 사또에게 살해되었다는 전설적인 유구(琉球) 왕자의 서글픈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잊을 수 없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는 계천이다.

## 문제 안고 시작된 공사

어느 날 이 유서 깊은 하천에 복개공사가 시작되었다. 행정당국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도 아니었다. 몇몇 상인들이 모여 추진한 사업에 행정당국이 질질 끌려 다닌 사업이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이고 문제점이고 제대로 검토될 턱이 없었다. 1966년부터 시작된 복개공사는 몇 단계에 걸쳐 무려 25년의 해를 거듭한 끝에 지난 1982년에 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를 지켜보면서 머리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견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들여다보인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의 흐름이나 수량 판단조차 못했던 공사는 호우가 쏟아지면 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물을 범람시켜 놓았다. 그 결과 동문시장 일대와 하천 상류의 저지대는 물바다로 변하고

33) 신문에는 ‘判事井’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判書亭’으로 바로 잡음.

34) 신문에는 ‘만군’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반군’으로 바로 잡음.

만다.

평소에도 복개 내부에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폐가 누적되고 있었다. 온갖 쓰레기 온갖 구정물이 쌓이면서 도시 한복판에 시궁창이 생겨난 것이다. 하상을 그대로 두고 물이 막히거나 쓰레기가 쌓였을 때 청소조차 할 수 없는 맹목적인 공사를 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한심스런 공사였다.

이런 공사였으므로 복개지상 건물인들 건재할 리가 없었다. 붕괴 위험 속에 온갖 논란이 거둬되다 마침내 철거 방침이 굳혀졌다. 이제 제주시 당국은 이 건물의 철거와 함께 다시는 시설물을 배제하고 하천 원상으로 복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군말 할 필요도 없이 박수를 치고 싶은 결단이라고 하겠다.

##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

여기서 우리의 우려는 이 산지천을 어떻게 복원시켜 놓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한 번 훼손된 산천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천의 생명인 물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가 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옛날 산지천에 은어가 뛰놀고 철새들이 찾아들게 한데는 수많은 샘이 늘 솟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락천(嘉樂泉)을 비롯하여 검정(檢井) 동수천(洞遼泉) 구명물 감액천(甘液泉) 급고천(汲古泉) 산저천(山底泉) 노리물 금산물 광대천(廣大泉) 등이 모두 이 산지천으로 솟아 흘렀던 것이다. 그러나 지하수를 굴착 이용하면서부터 이 샘들은 거의 말라버린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산지천을 살리는 데는 인공 상수를 끌어들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상수를 어떻게 거부감 없이 끌어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며 수량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상은 어떻게 정비하며 하천변은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등 고도의 연구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다. 앞으로 제주시가 여기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지만 그 같은 기술적 연구의 여하에 따라 산지천 복원의 성패가 좌우되리라고 본다.

지금 제주시의 구상은 산지천 전구간의 복원도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이번에 열리는 동문로터리와 용진교 구간 약 5백m에 한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 동문로터리에서 역동산까지 1백20m의 복개구간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과연 상류의 복개지대를 그대로 둔 채 하류지역만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또 상류에 오염원을 그대로 두고 하류의 정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상류의 복개지역을 그대로 두고 하류지역만 복원한다는 것은 기형으로 등장할 것이 뻔하며 두고두고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사명감을 갖고

‘공휴일궤(功虧一簣)’라는 말이 있다. ‘아홉 길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다. 산지천 복원은 실로 썩어 문

드리진 환부를 도려내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획기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의 오랜 숙원이요, 전 시민이 대망하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참으로 시대적 사명감을 지니고 지혜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